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최선을 다하는 것과 주님께 맡기는 것

성경:창32:24-31

-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리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창32:24-31)

최선을 다하는 것과 주님께 맡기는 것

최선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포자기 하듯이 지쳐 쓰러지듯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개에게 줘 버리듯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다.

실수가 두려워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는 안된다.

손해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맡겼다고 볼 수 없지 않는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다. 내가 설득할 수 없는 심령이 있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결국은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

두려움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 장자의 기쁨을 둘째가 받도록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을 예언한 것이지, 둘째가 장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결국 첫째는 둘째를 보호하며 군사가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둘째가 축복을 받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두 형제간에는 결끄러움이 남게 된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된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린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신다.

내가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느 순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마귀는 그 어느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마귀가 나 때문에 웃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된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혼자 살지 않기로 작정하기      말씀: 약1:26-27

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1:26-27)

-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 개도 좋아하면 똥을 받아준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무슨 희생인들 마다하리.
- 내가 애써 한사람 잘된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 돕되 다정하게 하고, 아랫사람 대우 하듯이, 적선 하듯이, 한심스럽다는 듯이, 키워서 잡아먹을 생각으로, 내가 도왔으니까 내말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하지는 말자. 그건 돕는게 아니다. 그것은 내리누르는 것이고, 조종하려는 것이고,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다.
  
- 도우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휘둘림을 당하기도 한다.
- 분명히 우리는 손해보고, 고통 당하기 위해서 남을 돕지는 않는다.
- 다만 우리는 손해당하는 사람을 도우려는 것이다. 고통 당하는 사람을 도우려는 것이다.
- 선불리 돕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기도 한다.
- 다시 말해서 혼자 살지 않기로 작정하게 되면 이래 저래 원치 않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려고 한다.

- 왜 우리는 함께 살려고 하는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써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도움으로 자원을 융통하고, 자원이 융통됨으로 산업이 돌아가기 때문이다.